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10, 재생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재생입니다.

우리는 구원론 또는 구원 교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며, 부름에서 재생으로 이동합니다.

간단한 성경 서론을 한 후, 우리는 중생의 체계적 공식화를 다룹니다. 중생에 대한 설명, 중생과 우리의 필요, 삼위일체 안에서의 중생, 중생과 예수의 구원 사역, 중생과 하나님의 말씀, 세례 안에서의 중생, 믿음 안에서의 중생, 중생과 그리스도인의 삶.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요약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에서 거듭남의 언어와 약속을, 에스겔 36장에서 성령의 약속된 은사에서,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마음의 변화에 대한 신약의 약속에서 발견합니다. 에스겔 36:35-37, 우리는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에스겔 36:25-27.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겠다고 약속한 후에, 여기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 너희가 모든 더러움 과 모든 우상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깨끗이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넣고,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규대로 행하게 하며 내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예레미야 31장부터 31장, 31장부터 34장에 나오는 위대한 새 언약 구절만큼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깨뜨린 내 언약이니라. 이것이 내가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더 이상 각자가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과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새 삶을 묘사하기 위해 탄생이나 거듭남이라는 언어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는 일은 그의 주권적 뜻의 일이다.

바울의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딤후 3:5)이며, 바울과 다른 곳에서는 부활 또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거듭남, 체계적인 공식화.

재생에 대한 설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에 대한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재생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전체적인 적용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것, 즉 선택, 하나님께서 1세기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것, 구원의 적용, 하나님께서 실제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의 아들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부르고,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 효과적으로 우리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재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복음에서 제시된 그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와 믿음의 속기입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정당화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생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동일한 현실, 즉 구원이 적용된 것에 대해 말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삶, 배경, 영적 죽음, 거듭남은 영적 부활,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저는 방금 요약한 것 중 하나가 거듭남의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거듭남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전형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과 다른 믿는 이들에게 살아있게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배경을 가진 다른 믿는 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슬픈 상황, 행복하고 슬픈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믿는 이들과 30분 동안 이야기하고,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느끼고, 영적인 차원에서 소통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늙은이들, 특히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 전생애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반면, 당신과 당신의 새로운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일입니다.
요한은 거듭남이 자연적 탄생과 대조하여 초자연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 복음 1장 12절과 13절.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 이는 본래의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예수께서는 거듭남이 즉각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용문,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
24.

바울은 거듭남을 구약의 개념인 마음의 할례에 비유합니다. 인용문,
사람은 유대인이며, 바울은 로마서 2:29에서 유대인은 내적으로
유대인이고 할례는 글자가 아닌 영으로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2:2
9.

신명기 10:18에서 하나님은 반역적인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을 할례하고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라. 그것은 명령입니다.
자비롭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할례하여 그들이 온 마음과 온
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명기 10:16의 명령은 나중에 신명기 30장 8절에서 지시적인 것으로
바뀐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내적으로 새롭게 하여 굳어진 마음을
수용적인 마음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하셨다. 새 언약에서 그의 영은 그의
백성 안에 거하며 그들의 순종을 촉구한다. 에스겔 36:26, 27.

이것이 명령형의 신약성서 현상입니다. 지시적, 이것은 그리스어 동사의
분위기 또는 양식으로, 1번, 지시적, 사물이 어떤지 표현하는 분위기,
사실에 대한 간단한 진술에 대해 말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구약과 신약에서 행하신 그의 위대한 행위에 대한 그의 낭송을 말합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적 표현에 근거하여 그를 위해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지시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명령은 지시적 표현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는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살 것을 기대합니다.

거듭남과 우리의 필요. 저는 구원의 적용의 각 측면이 그에 상응하는 필요성에 비추어 가장 잘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이 모두 구원에 관해 말하는 방식이라면, 우리의 필요성에 대한 그림은 모두 우리의 죄에 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에 대해 말하는 방식, 우리의 필요, 그리스도와의 분리로서 연합의 관점에서 본 죄의 그림. 부르심, 하나님께서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귀머거리이고 병어리였거나, 영적으로 볼 눈과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귀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측면에 대해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정당화. 우리는 정죄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입양. 일부 인기 있는 사역과 다소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아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예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의 영적 아들과 딸로 입양하셨습니다.

성화.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는 영적 나병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그의 성도로 구성하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구원의 적용의 모든 측면은 필요에 상응합니다. 이 경우, 거듭남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큰 친절과 사랑으로, 인용문,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그의 자비에 따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장, 6장. 영적 죽음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 목록의 맨 위에 있습니다. 인용문, 여러분은 이전에 행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도 이전에는 모두 육신의 정욕에 따라 그들 가운데 살았고, 우리는 본래 진노 아래 있는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4절. 거듭남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은 간단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고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거듭남과 삼위일체, 구원 교리의 모든 측면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 삼위일체의 일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각 인격은 우리의 재생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새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3. 재생에 대한 훌륭한 구절이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이 있을지어다.

그의 큰 자비에 따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시들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위하여 보호하심을 입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는 우리를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들의 부활은 새로운 탄생의 능력을 풀어줍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재생을 일으키십니다.

그는 그의 자비의 건축가이며,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실제적인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입니다. 성령은 가장 두드러진,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재생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합니다.

세 분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지만, 코를 세는 것과 재생의 구절을 보면 성령이 우세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맥락에서 예수님은 언어 유희를 하십니다. 같은 그리스어 단어인 프네우마는 숨, 바람 또는 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문자 s 또는 대문자 S.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불고, 예수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겠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요한복음 3:8). 부는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사람들을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8절). 사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짐 패커는 거듭남에서 성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패커의 Knowing God(신을 아는 것), 20주년 기념판, 62-63 쪽에서 인용한 대로, 성령이 없다면 믿음도 없고 거듭남도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복음의 빛은 빛나지만, 이 세상의 신은 인용문에서 인용문으로 인용하지만,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멀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4. 그리고 눈먼 자들은 빛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런 식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될 때 믿음에 이르지만, 성령이 없다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을 것입니다.

패커, 신을 아는 것. 거듭남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은 영적 죽음입니다. 거듭남은 삼위일체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자비로 그것을 일으키십니다. 아들은 발전기입니다. 그의 부활의 삶은 우리를 주입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적용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실제적인 대리인입니다. 아버지가 전력 회사를 소유하고 아들이 발전기라면 성령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그는 우리를 전력망에 연결해 줍니다.

물론, 세 분은 언제나 그렇듯이 조화롭게 함께 일합니다. 거듭남과 예수의 사역. 거듭남이 구원의 적용의 일부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즉 구원의 성취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재생의 기초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재생도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다면 재생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두 번째 아담, 로마서 5:8, 한 번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있는 것처럼, 한 번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칭의가 있습니다. 아담의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5:18, 아담의 원죄가 인류를 정죄에 빠뜨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번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칭의와 영생을 가져다줍니다.

예수의 죽음은 생명을 가져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부활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부활은 또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보았듯이 거듭남의 기초이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은, 인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 온다. 인용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고린도전서 15장 20 절에서 바울은 다시 아담의 죽음과 대조했다.

죽음이 사람을 통해 왔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1-22.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의 부활은 시대가 끝날 때 그들의 부활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원의 적용의 모든 측면, 특히 거듭남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부르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음의 부름, 즉 복음 전파를 통해 효과적인 부름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듭남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두 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여 새 생명을 준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로마서 1:16-17에 따르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여기에는 거듭남으로 볼 때 구원이 포함됩니다. 베드로전서 1:23,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말씀을 사용하여 새 생명을 창조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인용문, 여러분은 썩을 수 있는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 있고 영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1 베드로전서 1:23. 야고보는 거듭남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살리신다고 가르칩니다. 인용문, 그분은 자신의 선택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가 그의 창조물 중에서 일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18 . 따라서 거듭남과 설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비롭고 주권적으로, 성령은 말씀의 전파를 사용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남녀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연관시키시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3:3).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며, 메시아가 시작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거듭남과 기독교 세례. 여러 기독교 전통은 유아나 신자들이 세례에서 거듭난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세례적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유아 세례 중생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신자의 세례 중생은 소위 회복주의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적어도 그 중 일부는 그렇습니다. 저는 공평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독립 기독교 교회입니다. 유아나 신자의 세례 중생은 하나님께서 세례의 물을 통해 자동적으로 영적 생명을 전달하신다고 말합니다.

호소는 여러 성경구절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중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3:5에 대한 인용구입니다. 요한복음 3:5를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깁니다. 많은 신약성경 주석가들은 그것이 세례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관행인 기독교 세례에 대해 알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는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 읽은 에스겔 36:25-27을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에서 난다는 것은 종말론적 정화를 말하고, 성령에서 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31장에서 한 것처럼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새 언약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개념이 겹치는데, 마지막 날, 즉 종말론적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죄로부터 큰 정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과 재생에서 성취되며,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에 대해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 아이디어를 갖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에스겔 36:25-27을 언급하시므로, 물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종말론적 정화를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깨끗한 물로 씻을 것이요, 너희는 깨끗하리라,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내 영을 주고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살의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돌의 마음을 제거하고, 미안하지만, 살의 마음을 줄 것이다.

심장을 제거해라, 그건 안 돼. 돌의 심장을 제거하고 살의 심장을 줘. 그게 재생에서 일어나는 일의 기본적인 그림이야, 세상에.

돌에서 살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영이 거듭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디도서 3:5와 성령의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에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세례를 말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세례적 거듭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신약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믿고, 그런 다음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우리가 발견하는 선교 상황의 경우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거듭남과 세례: 기독교 세례는 중요합니다. 저는 세례가 의식일 뿐만 아니라 성례전,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종속되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의 만찬과 함께 믿는 참여자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세례와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구원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남과 믿음. 신자들은 거듭남과 믿음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것이 인과적 우선순위인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그것은 먼저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표현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것들은 보통 동시에 일어납니다.

믿음이 재생의 원인인가, 아르미니우스적 관점인가, 아니면 재생이 믿음의 원인인가, 칼빈주의적 관점인가? 전구 스위치를 예로 들어보자. 스위치를 켜고 이 그림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하고 방에 불이 들어온다. 스위치를 켜는 것이 믿음과 깨달음 재생인가, 아니면 스위치를 켜는 것이 재생과 깨달음 믿음인가? 이 그림을 위해 전기 기술자가 되지 말고, 저와 함께 기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아니면 차를 시동하는 것이 열쇠를 돌리는 것이 재생이고 차가 믿음으로 시동을 거는 것인가요? 아니면 열쇠를 돌리는 것이 믿음이고 차가 재생을 시작하는 것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를 가정하지 마세요. 여기의 예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TV를 시동하는 것 등 다른 많은 예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동시적이지만, 둘 중 하나에 대한 인과적 우선권이 있는가? 요한 1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듯하다. 요한 1서 2:29, 3:9, 4:7에서 확립된 패턴을 볼 수 있다. 이 구절에서 거듭난 자, 거듭난 자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어 *genoto* 의 완료 수동태, 낳다, 낳다.

요한일서 2:29. 그가 의롭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아마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한일서가 이러한 대명사 중 일부의 선행사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며, 확실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모두 의로우십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도 알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철회합니다.

아마도 아버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탄생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안다면 이것도 알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탄생이 옳은 일을 하는 원인인 곳에서, 어떤 개신교도도 거듭나기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9.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같은 완전한 수동적, 완전한 존재였고, 수동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의 씨가 그 안에 거함이니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거듭남은 거룩한 삶의 원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압니다. 이 동사의 완료 수동태 시제와 동일합니다. 태어나다. 어떤 개신교도도 거듭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거듭남은 죄를 짓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인입니다. 거듭남은 거룩함과 서로를 사랑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이것이 거듭남과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반에서 그 질문을 해주셔서 기쁩니다.

답은 요한일서 5:1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게나오의 완벽한 수동태와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요한이 말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그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그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가 하는 다른

방법들을 잊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다르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전 세 구절의 패턴을 따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증거로 언급합니다.

재생과 믿음은 동시에 발생하므로 연대순으로 분리할 수 없지만, 재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을 강조하는 구원의 그림인 반면, 회심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응답을 강조하는 구원의 그림이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재생과 믿음의 관계에 대한 저의 이해는 재생이 스위치를 켜고, 스테레오를 켜고, 열쇠를 돌려 차를 시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방을 밝히고, 음악을 시작하거나, 차를 시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생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듭남은 신자들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생겨난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선행으로 나타나는지 말합니다(에베소서 2:10). 성령은 생명을 주고(고린도후서 3:6), 신자들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18절). 베드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시들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으시고 하늘에 신자들을 위해 간직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썩을 수 있는 씨에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하나님의 살아 있고 영속하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인용하자면, 우리는 서로에게 순수한 마음에서 진실한 형제 사랑을 보이고 서로 열렬히 사랑합니다(베드로전서 1:22, 23). 요한 1서는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합니다. 요한은 새로운 삶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 사람들이 믿는 것, 그들이 사는 방식, 그들이 사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거듭남은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은 “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갔기 때문입니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아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4:1-3.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4:1-3. 요한은 독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시킵니다, 요한일서 5:1. 거듭남은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5-7. 우리가 그분과 사귀어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을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안에 계셨던 것같이 빛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귀어 있고 예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5-7. 빛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삶은 죄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기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한일서 1:8-10. 재생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 동료 신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니가 와는 잘 표현했습니다. 인용문, 믿음, 실행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의 진실성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됩니다. 인용문 닫기. 아프리카 성경 주석, 사무엘 니가와 , 요한 1서, 1535쪽.

이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한일서 4:8). 존 스토틀는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 안에서 시작되고(요한일서 4:7-8), 그의 아들 안에서 나타났으며(요한일서 4:9-10), 그의 백성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12절). 더 구체적으로,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선을 추구하고 영원히 그들의 선을 위해 자신을 바칩니다. 그의 사랑은 본질적이고 영원하며 그의 모든 신성한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각자가 영을 사랑하는 등 삼위일체 안에서 표현됩니다.

이 본질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우리에게도 흘러나옵니다. 사실, 내주하는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특히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사역에서 나타납니다. 영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4:7-8. 로버트 야브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적 재생을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사랑을 일으킨다고 언급합니다. 야브로, 요한일서 1-3장, 235쪽.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용문에서 영이 그의 평범한 영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거룩한 본성으로 영혼에 자신을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영은 영혼에 내주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고, 주제는 영적인 것이 됩니다. 인용문 닫기. 에드워즈, 자선과 그 열매, *Soli Deo Gloria*, 2.5.7.

그러한 신성한 은혜는 말하자면, 인용하자면, 심장의 맨 밑바닥까지 도달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본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지속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에드워즈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전하고, 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영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전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리고 공동체의 일부이며, 이는 사랑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선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그들의 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그의 백성인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선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그들의 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다. 크리스토퍼 모건, 인용문, 삼위일체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형성하는가? Love of God라는 책에서, 130-142쪽. Theology in Community 시리즈에 실려 있다.

이것으로 재생에 대한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회심 교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재생입니다.